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에 대한 연구

이교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영향의 정도를 밝히고, 결과를 근거로 자녀 양육행동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부모효능감, 출신국가, 자녀 기질에 따른 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자녀관계 스트레스, 성취기대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주위 인물의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결론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주요어 다문화가정 어머니, 양육행동 효과성, 양육행동 효과성 영향 요인

1. 연구목적

1990년 이후 한국사회는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과 이주 노동자의 국내 입국으로 인해 다문화사회가 되기 시작한다. 또한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통계청의 인구현황 조사에 따르면 1990~2008년까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건수는 315,487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국제결혼 건수가 전체 혼인 건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2%에서 2008년 11.0%로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결혼 건수는 1990년 619건에서 2008년 28,16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건수 8,041건에 비

*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학, rewaev@naver.com

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건수는 28,163건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국제결혼 건수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통계청, 2009).

국제결혼이 증가함과 동시에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어려움 역시 증가하고 있다. 문화가 다름으로 나타나는 신념, 언어, 관습 등의 차이는 부부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손은록, 200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 사용은 자녀 양육행동에 어려움을 주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조혜영 외,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으로 태어나게 된 자녀들은 낮은 자아정체성과 이중 문화에 대한 혼란스러움,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 사용, 선생님과 또래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송선진, 2007;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러한 모습은 부모 양육행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문화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지지와 관심, 많은 의사소통 등은 자녀의 사회적 역량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녀 양육행동에 따라 자녀의 심리사회적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강석광, 2007). 자녀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높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학교적응 유연성을 가지게 되며, 또래와의 관계와 주위 인물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나타난다.

국제결혼이 증가함과 동시에 다문화가정 자녀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8)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 재학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을 때, 18,769명이며 국제결혼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기간이 2003년부터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장차 한국 사회에 주역으로 성장할 것을 고려된다면,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로 할 것이며, 또한 자녀 양육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 효과성에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학적, 심리내적, 사회적 특성이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과 그 영향의 정도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양육행동 효과성을 높이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1) 다문화가정 자녀와 양육 환경

다문화가정 자녀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성장하고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를 지칭한다(황지민, 2010).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다문화가정의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자녀들이 출산하게 되었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연구자들은 다문화가정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조명하기에 앞서,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한국 생활 적응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들은 친사회적 행동발달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일반가정 자녀가 다문화가정 자녀보다 친사회적 행동발달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므로 친사회적 능력이 부족하여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현미, 2009). 또한 학교생활 적응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필벽 재단의 200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혼혈인의 경우 0%에 가까운 초등학교 미진학 및 중퇴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는 9.4%에 달했고, 중학교 미진학 및 중퇴율은 17.5%로 비혼혈인(1.1%)에 비해 15배가 넘었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숙도, 어머니의 출신국가, 교사와의 관계, 또래관계 정도에 따라 차이점이 나타난다(이순실, 2008).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생활 적응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서 살펴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은선경, 2010; 임진숙, 2008; 강성률, 2009; 안은미, 2007). 그러나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시작이 되었으며, 아직까지 조사 대상의 연령과 지역이 제한됨으로 인해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의 수, 연구 수 또한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이며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2) 양육행동 영향 요인과 아동의 적응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으로써,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성격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각 발달단계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겪는 경험은 아동의 지적, 정신적, 신체적, 행동적 발달과 아동의 성격이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기와 아동기에 매우 중요하다(권혜경, 2003). 따라서 양육행동은 아동의 인성, 자아개념, 학업성취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 또래 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행동의 효과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연령, 자녀수, 취업여부,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난다(안지영, 2000). 어머니의 심리내·외적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난다(신숙재, 2005; 김민정, 2007; 황영주, 1997; 김수경, 2010).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게 되는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1992)이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 역할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양육 스트레스로 개념화하였다. Abidin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는 부모의 특성 및 일, 환경, 주요 생활사건과 같은 환경적 변인과 자녀의 기질이 양육 역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Abidin은 부모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녀가 성장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김정진, 2000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자녀에 대해 온정적 양육행동이 감소하게 되고 거부적, 권위주의적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자녀 양육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성연·한성현, 1996; 박응임, 1998; 김정진, 2000).

부모효능감은 Abidin(1990)은 부모 스스로 자녀의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였다(김정진, 2000 재인용). Bandura(1977)는 부모효능감을 자기효능감 이론을 통해 살펴볼 때,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고 하였다(김정진, 2000 재인용). 즉,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역량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으로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즐기고, 온정적이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자녀들의 자기효능감을 성장시킨다는 점과 양육자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중재변수로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신숙재, 1997; 우희적·이숙, 1994).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특성은 배우자의 지지와 배우자를 제외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에 따라 양육행동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Abidin(1990)의 다요인적 모델은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과 자녀의 특성 뿐 아니라 주위의 도움과 남편의 협력과 같은 요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즉, 자녀 양육에 있어 배우자의 정서적, 신체적 지지는 부모 역할 수행에서 촉진적인 기능을 하며, 양육행동에 정적 관련이 있다(김정진, 2000 재인용). 또한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주위 인물의 지지 자원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남으로 인해 자녀의 사회적 역량이 높아진다(구순주, 1996).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는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원을 말하며, 이것에 따른 결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를 의미하기도 한다(Hovey & Magana, 2002; 홍미기, 2009 재인용). 즉,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여러 요인에 의해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는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중 통합유형, 즉, 거주 기간 중 초기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이룬 시기, 높은 언어 구사력, 다원주의 사회 가치관, 높은 교육 수준, 합법적이고 자발적인 이주 유형, 결혼, 상대적으로 높아진 사회경제적 지위, 많은 사회접촉의 기회, 접촉에 대한 기대와 실제 접촉과의 적절한 조화 등이다(Smart & Smart, 1994; Yim, 1988; 이소래, 1997 재인용).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편과 시부모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 부부 간 권력 배분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받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이다. 그 밖에 성역할태도의 차이, 음식과 가족 문화의 차이 등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Berry(2005)에 의하면 이들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더 나은 나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더 큰 문화적 충격을 받고 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김은실, 2007 재인용). 한국의 다문화가정 어머니 출신국가 비율이 동남아 국가 계열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김수경, 2010; 진형주,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이 높기 위해서는 어머니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감소시키거나 이러한 요인에 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해석이나 대처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강화 및 지원을 함으로써 양육행동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을 통제변인으로 두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배우자 지지, 주위 인물의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 요인으로 두고, 실제 이 요인들이 양육행동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이상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기질,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심리내적 특성인 부모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특성인 배우자 지지, 주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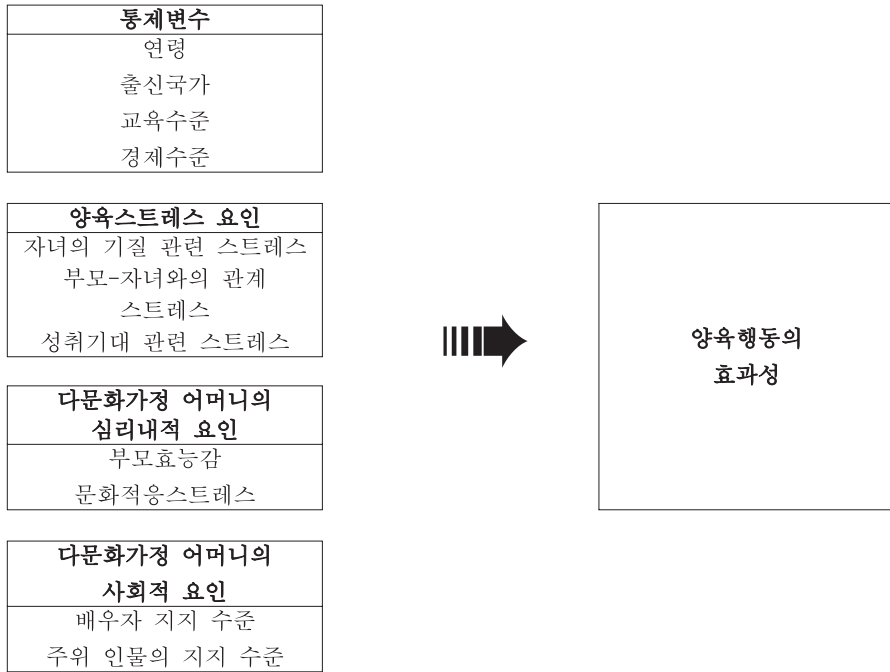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설계

인물들의 지지가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라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기질,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심리내적 특성인 부모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특성인 배우자 지지, 주위 인물의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또한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두었을 때,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준은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중, 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어야 하며 ②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가 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이어야 한다. 자녀의 연령을 제한한 이유는 이 시기에 속한 자녀는 어머니의 양육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시기라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 시기에 자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언어발달, 사회력 습득, 학습발달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을 높이는 영향 변인을 연구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을 알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영남 지역에 거주하며 만 5~12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쉼터, 한글교실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나이, 지역, 출신국가, 결혼년도, 가족, 학력,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수준, 종교, 직업, 경제수준, 자녀수에 관하여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양육행동 효과성

양육행동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성연·이숙(1990)이 개발한 척도로 7개 요인으로 된 총 51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수정하여 유아기와 초등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김미숙(2005)이 사용한 척도를 문항 삭제, 용어의 수정을 통해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섯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인 1은 합리적인 지도, 요인 2는 애정, 요인 3은 권위주의적 통제, 요인 4는 과보호, 요인 5는 적극적 참여로 되어 있다. 양육행동 효과성 척도는 하위요인별로 요인 1은 5문항, 요인 2는 6문항, 요인 3은 9문항, 요인 4는 7문항, 요인 5는 3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이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총점은 30점에서 15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행동 효과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7$ 로 나타났다.

(3) 양육스트레스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의 단축형 양육스트레스척도 (PSI/SF: 36문항)를 수정하여 초등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신숙재(1997)가 사용한 척도를 문항 삭제 및 용어의 수정을 통해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인 1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2는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3은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인 1은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등 자녀와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내용이다. 요인 2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이다. 요인 3은 자녀가 부모의 기대보다 과업성취가 낮으며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아서 느끼는 스트레스이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하위요인별로 요인 1은 6문항, 요인 2는 5문항, 요인 3은 2문항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부정문으로 된 3문항이 역으로 채점되었으며, 가능한 총 점수의 범위는 13점에서 65점이며 본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Cronbach's $\alpha=.578$,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Cronbach's $\alpha=.732$,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 스트레스는 Cronbach's $\alpha=.570$ 이며, 양육스트레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68$ 로 나타났다.

(4) 심리내적 특성

①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신숙재(1995)가 Gibaud-Wallston이 개발한 16문항으로 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번안수정하여 요인분석을 거쳐 추출한 9문항의 부모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효능감은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신숙재가 이를 번안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부모효능감 요인의 고유치는 2.81이었고, 부모불안에 대한 요인 고유치는 1.74였으며, 설명변량은 각각 62%와 38%였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설계에 의해 부모효능감 9문항만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문항의

내용은 부모역할에서의 유능감이나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문제해결기술과 능력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기대를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도구의 문항은 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부정문으로 된 2문항이 역으로 채점되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9점에서 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4$ 로 나타났다.

②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번안하여 제작된 양옥경(2005)의 척도를 문항 삭제 및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곱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인 1은 지각된 차별감, 요인 2는 향수병, 요인 3은 지각된 증오심, 요인 4는 두려움, 요인 5는 문화충격, 요인 6은 죄책감, 요인 7은 기타로 되어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하위요인별로 요인 1은 8문항, 요인 2는 2문항, 요인 3은 4문항, 요인 4는 4문항, 요인 5는 2문항, 요인 6은 2문항, 요인 7은 7문항의 총 문항수는 2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9점에서 1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0$ 로 나타났다.

(5) 사회적 특성: 배우자와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

배우자 지지 수준에 대한 측정은 양육에 대한 부부관계로 초점을 두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협력을 보고자 Abidin이 개발한 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의 하위척도인 Teamwork을 신숙재(1997)가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남편이 부모로서 부인과 대화하고 지원해주는 정도와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과 자녀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부인과 얼마나 잘 합의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이다. 이 설문지의 문항은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이 부모로서 잘 도와준다고 부인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3$ 으로 나타났다.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박지원(1985)의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적 지원 척도를 수정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문항수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2점에서 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 주위 자원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5$ 로 나타났다.

5)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모집방법과 관련하여, 임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무작위표본 추출을 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영남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글을 교육하는 한글교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복지관 및 쉼터, 가톨릭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표집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2010년도 3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및 쉼터의 명단을 확보한 후, 이것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접촉 기관을 선택하였으며, 연구자가 각 기관의 기관장이나 다문화가정 어머니 담당자에게 전화 통화하여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설문조사를 수락한 기관은 모두 16기관이었으며, 대구 2기관, 울산 6기관, 부산 2기관, 경북 6기관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첫 번째, 설문지를 각국의 모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영어설문지는 원척도를 토대로 호주에서 유학한 후 TESOL 자격증이 있으며 국제행사에서 통역 경험이 많은 한국인 남성에게 의해 번역되었으며, 역번역은 대구대학교에서 영어회화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말이 자유로운 재미교포가 하였다. 중국어 설문지의 번역은 중

국에서 31년을 거주하였으며, 사회복지를 전공한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한 조선족이 하였으며, 이에 대한 역번역은 한국에 거주한지 10년이 되었으며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자녀가 3명이 있으며 영남대학교에서 통역대학원을 다니는 대만 여성이 하였다. 일본어 번역은 일본에서 4년째 유학을 하고 있으며, 일본 교회에서 일본어 통번역으로 자원봉사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 번역하였고, 일본어 설문지에 대한 역번역은 한국남성과 결혼하였으며 한국에 거주한지 10년이 되었으며 한국말을 자유롭게 하는 일본인 여성이 하였다. 베트남어 설문지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번역 및 역번역을 의뢰할 만한 적격자를 찾지 못하여 작성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조사 과정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0년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본 연구자가 다문화가정 어머니 집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Feedback 내용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거나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문항에 대해 수정 보완하였고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자료 수집을 하였다. 각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자가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설문지에 답하게 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연구자나 기관의 종사자에 의하여 직접 면대면 방식으로 배부되었으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모두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서비스도 제공되었다. 각 언어의 통역은 기관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3월 31일부터 5월 2일까지였다. 설문지는 모두 220부를 배포하여 180부가 회수되었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 자료로써 불성실하게 기입된 설문지와 자녀가 5세 미만이거나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설문지를 제외한 145부 만을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PASW STATISTIC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및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방법은 Chronbach's α 를 통한 신뢰도 검증, 기술 통계, 독립표본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사후검정 Scheffe),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출신국가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는데, 이 중 동북아국가=1, 동남아국가=0으로 코딩 변경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4. 분석결과

1)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 독립변수로 설정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및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 대상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수준, 주위 인물 지지 수준과 다문화가정 어머니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의 하위요인별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양육스트레스 하위 요인인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총점 30점을 기준으로 평균 13.59(SD=3.71), 최소값 6.0, 최고값 21.0이 나왔고,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총점 25점을 기준으로 평균 14.19(SD=4.01), 최소값 5.0, 최대값 25.0이 나왔고, 자녀에 대한 성취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총점 10점을 기준으로 평균 5.61(SD=7.52), 최소값 2.0, 최대값 10.0이 나왔다. 양육스트레스 총점에서는 총점 65점을 기준으로 평균 33.40(SD=7.52), 최소값 15.0, 최대값 55.0이 나왔다. 부모효능감에서는 총점 45점을 기준으로 평균 31.76(SD=6.17), 최소값 16.0, 최대값 45.0이 나왔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는 총점 145점을 기준으로 평균 68.31(SD=21.24), 최소

표 3. 주요변수들의 특성

변수			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	최대값
독립변수	양육 스트레스	자녀관계 스트레스	13.59	3.71	6.0	21.0
		자녀기질 스트레스	14.19	4.01	5.0	25.0
		성취기대 스트레스	5.61	1.93	2.0	10.0
		양육스트레스 총점	33.40	7.52	15.0	55.0
		부모효능감	31.76	6.17	16.0	45.0
	문화적응 스트레스	68.31	21.24	30.0	132.0	
	배우자 지지 수준	35.17	9.15	10.0	50.0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	36.67	11.16	12.0	60.0	
종속변수	양육행동 효과성		106.08	13.13	78.0	137.0

값 30.0, 최대값 132.0이 나왔다. 배우자 지지 수준에서는 총점 50점을 기준으로 평균 35.17(SD=9.15), 최소값 10.0, 최대값 50.0이 나왔고, 주위 인물 지지 수준에서는 총점 60점을 기준으로 평균 36.67(SD=11.16), 최소값 12.0, 최대값 60.0이 나왔다. 다문화가정 어머니 양육행동 효과성은 총점 150점을 기준으로 평균 106.08(SD=13.13), 최소값 78.0, 최대값 137.0이 나왔다.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

본 연구 대상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별로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조사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이 20대(M=14.16, SD=3.70)가 30대(M=12.97, SD=3.65)보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t=1.942, p=.054$), 유의한

표 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연령	N	M(SD)	df	t	p
자녀관계 스트레스	20대	76	14.16(3.70)	143	1.942	.054
	30대 이상	69	12.97(3.65)			
자녀기질 스트레스	20대	76	14.49(3.50)	143	.925	.357
	30대 이상	69	13.87(4.51)			
성취기대 스트레스	20대	76	5.79(1.73)	131.613	1.143	.255
	30대 이상	69	5.42(2.12)			
양육스트레스 총점	20대	76	34.43(6.67)	143	1.750	.082
	30대 이상	69	32.26(8.26)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p=.05$ 라는 기준 값에 거의 근사한 유의수준($p=.054$)으로 연령에 따른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연령에 따른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t=.925, p=.357$),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로 인한 스트레스($t=1.143, p=.255$)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750, p=.08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은 다음 표 4과 같다.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출신국가에 따른 분석결과,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동북아국가 출신 어머니($M=12.66, SD=3.91$)가 동남아국가 출신 어머니($M=14.35, SD=3.80$)보다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동북아국가 출신 어머니가 동남아 국가 출신 어머니보다 자녀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788, p=.006$). 하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자녀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t=-.854, p=.394$)와 자녀에 대한 성취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t=1.401, p=.164$)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표 5.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출신국가	N	M(SD)	df	t	p
자녀관계 스트레스	동북아국가	65	12.66(3.91)	143	-2.788	.006
	동남아국가	80	14.35(3.38)			
자녀기질 스트레스	동북아국가	65	13.88(4.24)	143	-.854	.394
	동남아국가	80	14.45(3.83)			
성취기대 스트레스	동북아국가	65	5.86(2.15)	143	1.401	.164
	동남아국가	80	5.41(1.71)			
양육스트레스 총점	동북아국가	65	32.40(8.39)	143	-1.449	.150
	동남아국가	80	34.21(6.67)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449$, $p=.15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다음 표 5와 같다.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교육수준에 따른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자녀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t=1.566$, $p=.122$), 자녀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t=1.429$, $p=.155$),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로 인한 스트레스($t=.804$, $p=.423$)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735$, $p=.085$).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표 6과 같다.

(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9.060$, $p=.000$).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heffe 검증을 진행한 결과,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

표 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교육수준	N	M(SD)	df	t	p
자녀관계 스트레스	중졸이하	62	14.15(3.61)	143	1.556	.122
	고졸이상	83	13.18(3.75)			
자녀기질 스트레스	중졸이하	62	14.74(3.84)	143	1.429	.155
	고졸이상	83	13.78(4.11)			
성취기대 스트레스	중졸이하	62	5.76(1.68)	142,315	.804	.423
	고졸이상	83	5.51(2.10)			
양육스트레스 총점	중졸이하	62	34.65(6.72)	143	1.735	.085
	고졸이상	83	32.47(7.98)			

레스에서는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M=15.03, SD=3.71)이 경제수준이 중간(M=12.54, SD=3.54), 높은 집단(M=12.48, SD=3.10)보다 자녀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자녀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F=1.066, p=.347),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로 인한 스트레스(F=1.257, p=.288)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794, p=.010).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M=35.58, SD=7.28)이 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M=31.76, SD=7.14)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교육수준	N	M(SD)	df	f	p	Scheffe
자녀관계 스트레스	하	62	15.03(3.71)	2	9.060	.000	하)중, 하)상
	중	50	12.54(3.54)				
	상	33	12.48(3.10)				
	합계	145	13.59(3.71)				
자녀기질 스트레스	하	62	14.71(3.89)	2	1.066	.347	
	중	50	13.60(3.96)				
	상	33	14.12(4.29)				
	합계	145	14.19(4.01)				
성취기대 스트레스	하	62	5.84(1.93)	2	1.257	.288	
	중	50	5.62(1.70)				
	상	33	5.18(2.21)				
	합계	145	5.61(1.93)				
양육스트레스 총점	하	62	35.58(7.28)	2	4.794	.010	하)중, 하)상
	중	50	31.76(7.14)				
	상	33	31.79(7.70)				
	합계	145	33.40(7.52)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심리내적 요인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본 연구의 대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효능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t=-.717, p=.474$), 출신국가($t=1.763, p=.080$), 교육수준($t=-1.393, p=.166$)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효능감

구분	내용	N	M(SD)	df	t	p
연령	20대	76	31.41(6.43)	143	-.717	.474
	30대 이상	69	32.14(5.90)			
출신국가	동북아국가	65	32.75(6.61)	143	1.763	.080
	동남아국가	80	30.95(5.70)			
교육수준	중졸이하	62	30.94(6.33)	143	-1.393	.166
	고졸이상	83	32.37(6.02)			

②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효능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289, p=.006$).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진행한 결과, 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M=33.08, SD=6.56$)이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M=29.89, SD=6.25$)보다 부모효능감이 높으며,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M=33.27, SD=4.35$)이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M=29.89, SD=6.25$)보다 부모효능감이

표 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		N	M(SD)	df	F	p	Scheffe
경제수준	하	62	29.89(6.25)	2	5.289	.006	상)하, 중)하
	중	50	33.08(6.56)				
	상	33	33.27(4.35)				
	합계	145	31.76(6.17)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결과는 표 9과 같다.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본 연구의 대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이 20대(M=71.93, SD=21.14)가 30대 이상(M=64.32, SD=20.79)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대 연령의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30대 이상의 어머니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게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t=2.184, p=.03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동북아국가 출신 어머니(M=60.98, SD=21.63)가 동남아국가 출신 어머니(M=74.26, SD=19.07)보다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동북아국가 출신 어머니가 동남아 국가 출신 어머니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926, p=.000$). 하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684, p=.09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표 10과 같다.

②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276, p=.28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표 11과 같다.

표 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구분	내용	N	M(SD)	df	t	p
연령	20대	76	71.93(21.14)	143	2.184	.031
	30대 이상	69	64.32(20.78)			
출신국가	동북아국가	65	60.98(21.63)	143	-3.926	.000
	동남아국가	80	74.26(19.07)			
교육수준	중졸이하	62	71.73(19.84)	143	1.684	.094
	고졸이상	83	65.76(22.00)			

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요인

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 지지 수준

본 연구의 대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 지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지지 수준은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N	M(SD)	df	F	p	Scheffe
경제수준	하	62	70.40(19.25)	2	1.276	.282	
	중	50	69.06(23.22)				
	상	33	63.24(21.51)				
	합계	145	68.31(21.24)				

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 지지 수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 지지 수준의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 가 동북아국가 출신 어머니(M=37.20, SD=9.88)가 동남아국가 출신 어머니(M=33.51, SD=8.22)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54, p=.015$). 하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 지지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1.340, p=.182$).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 지지 수준의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609, p=.54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 지지 수준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 지지 수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 지지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 지지 수준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631, p=.029$).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진행한 결과,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

표 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 지지 수준

구분	내용	N	M(SD)	df	t	p
연령	20대	76	34.20(9.39)	143	-1.340	.182
	30대 이상	69	36.23(8.83)			
출신국가	동북아국가	65	37.20(9.88)	143	2.454	.015
	동남아국가	80	33.51(8.22)			
교육수준	중졸이하	62	34.63(9.54)	143	-.609	.544
	고졸이상	83	35.57(8.90)			

표 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 지지 수준

배우자 지지 수준		N	M(SD)	df	F	p	Scheffe
경제수준	하	62	32.84(9.15)	2	3.631	.029	
	중	50	36.98(8.43)				
	상	33	36.79(9.50)				
	합계	145	35.17(9.15)				

집단이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인 차이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배우자 지지 수준의 결과는 표 13과 같다.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

본 연구의 대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에 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이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t=-.429$, $p=.669$), 출신국가($t=1.818$, $p=.071$)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 차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M=34.61$, $SD=10.93$)가 고졸 이상($M=38.20$, $SD=11.14$)인 어머니보다 양육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1.936$, $p=.055$). 하지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p=.05$ 라는 기준 값에 거의 근사한 유의 수준($p=.055$)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표 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

구분	내용	N	M(SD)	df	t	p
연령	20대	76	36.29(11.16)	143	-.429	.669
	30대 이상	69	37.09(11.22)			
출신국가	동북아국가	65	38.52(12.26)	122.831	1.780	.077
	동남아국가	80	35.16(10.00)			
교육수준	중졸이하	62	34.61(10.93)	143	-1.936	.055
	고졸이상	83	38.20(11.14)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에 대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674, p=.011$).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진행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이 상($M=41.36, SD=10.31$)이 경제수준이 하($M=34.19, SD=9.96$)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		N	M(SD)	df	F	p	Scheffe
경제수준	하	62	34.19(9.96)	2	4.674	.011	
	중	50	36.64(12.26)				
	상	33	41.36(10.31)				
	합계	145	36.67(11.1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은 표 15와 같다.

5)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

본 연구의 대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행동 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행동 효과성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동북아국가 출신 어머니(M=111.66, SD=12.98)가 동남아국가 출신 어머니(M=101.55 SD=11.46)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4.978, p=.00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행동 효과성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t=-1.017, p=.3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행동 효과성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832, p=.06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행동

표 1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행동 효과성

구분	내용	N	M(SD)	df	t	p
연령	20대	76	105.03(12.86)	143	-1.017	.311
	30대 이상	69	107.25(13.42)			
출신국가	동북아국가	65	111.66(12.98)	143	4.978	.000
	동남아국가	80	101.55(11.46)			
교육수준	중졸이하	62	103.79(13.65)	143	-1.832	.069
	고졸이상	83	107.80(12.54)			

효과성은 표 16과 같다.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양육행동 효과성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양육행동 효과성의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050, p<.05$).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진행한 결과,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 집단이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인 차이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행동 효과성은 표 17과 같다.

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관관계

표 18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 영향 변인인 연령, 교육수준, 출신국가, 경제수준,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로 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배우자 지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주위 인물의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연령($r=.085, p>.05$), 교육수준($r=.151, p>.05$)을 제외한 출신국가($r=.384, p<.01$), 경제수준($r=.214, p<.01$),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484, p<.01$),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r=-.373, p<.01$),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로 인한 스트레스($r=-.191, p<.05$), 부모효능감($r=.520, p<.01$), 다문화가정 어머니 양육에 대한 배우자 지지($r=.296, p<.01$), 다문화가정 어머니 양육에 대한

표 17.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양육행동 효과성

양육행동 효과성		N	M(SD)	df	F	p	Scheffe
경제수준	하	62	102.58(13.09)	2	4.050	.019	
	중	50	108.40(13.24)				
	상	33	109.15(11.78)				
	합계	145	106.08(13.13)				

주위 인물의 지지($r=.200, p<.05$), 문화적응 스트레스($r=-.362, p<.01$)가 양육행동 효과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양육행동 효과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로 인한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은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연령, 교육수준, 출신국가, 경제수준,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및 주위 인물의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양육행동 효과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다문화가정 어머니 양육행동 효과성 영향 변인과 양육행동 효과성과의 상관관계

(n=1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령(1)												
교육수준(2)	.237**											
출신국가(3)	.391**	.134										
경제수준(4)	.102	.295**	.018									
자녀관계(5)	-.160	-.129	-.227**	-.299**								
자녀기질(6)	-.077	-.119	-.071	-.076	.409**							
성취기대(7)	-.096	-.065	.116	-.129	.228**	.487**						
부모효능감(8)	.060	.16	.146	.237**	-.652**	-.262**	-.111					
배우자지지(9)	.111	.051	.201*	.191*	-.501**	-.173*	-.057	.600**				
주위인물지지(10)	.036	.160	.150	.244**	-.230**	-.185*	-.315**	.206*	.334**			
문화적응스트레스(11)	-.180*	-.139	-.312**	-.123	.344**	.317**	.122	-.278**	-.222**	-.026		
양육행동효과성(12)	.085	.151	.384**	.214**	-.484**	-.373**	-.191*	.520**	.296**	.200*	-.362**	

* $p<.05$, ** $p<.01$, *** $p<.001$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로 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다문화가정 어머니 양육에 대한 배우자 지지 및 주위 인물의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양육행동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여부를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IF)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IF)를 보면, 황성동(2006)이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변수에서 공차한계가 .10보다 크며, 분산팽창요인(VIF)계수가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은 양육행동 효과성에 대해 41.8%(adjusted R²=.41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10.408, p<.00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는 다문화가

표 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n=145)

모형		B	SE B	β	t	p	tolerance limit	VIF
	(상수)	100.492	10.925		9.198	.000		
	연령	-3.260	1.892	-.124	-1.723	.087	.775	1.291
	교육수준	.590	1.833	.022	.322	.748	.842	1.188
	출신국가	9.040	2.006	.344	4.506	.000	.695	1.439
	경제수준	1.371	1.186	.082	1.156	.250	.800	1.251
양육 스트 레스	자녀관계스트레스	-.280	.333	-.079	-.842	.401	.457	2.187
	자녀기질스트레스	-.537	.262	-.164	-2.047	.043	.629	1.591
	성취기대스트레스	-.560	.540	-.082	-1.037	.302	.644	1.554
부모효능감		.824	.198	.387	4.160	.000	.466	2.147
배우자 지지		-.148	.122	-.103	-1.213	.227	.559	1.789
주위 인물의 지지		.009	.088	.007	.097	.923	.724	1.380
문화적응 스트레스		-.055	.045	-.089	-1.224	.223	.757	1.321
R ²		adjusted R ²		F		p	Durbin-Watson	
.463		.418		10.408		.000	1.759	

정 어머니의 출신국가($\beta=.344, p<.001$),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beta=-.164, p<.005$), 부모효능감($\beta=.387, p<.0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배우자 지지, 주위 인물의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p>.05$).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변수들을 살펴보면, 부모효능감이 영향력계수(β)가 .387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beta=.344$),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beta=-.164$) 순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적(-)관계로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양육행동 효과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분석한 결과는 표 19과 같다.

5. 결론 및 제언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의 증가로 인하여 단일문화 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남성과 결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2010년대가 접어든 현재 이들의 결혼으로 인해 이들의 자녀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이 비혼혈 가정 자녀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으로 인해 이들의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전 연구하게 되었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연구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함으로써 이들이 자녀 양육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은 강화 및 지원하며 부적 요인에 대해 감소시킴으로써, 양육행동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자녀가 한국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본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본 결과, 동남아국가 출신 어머니가 동북아국가 출신 어머니보다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연구한 이경아(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순실(2008)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일본인 어머니인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원만하다는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연구한 전상미(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경제수준에 따라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한 송미혜(2006)의 결과와 불일치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심리내적 요인(부모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을 살펴본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홍정유(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으로써 본 결과를 지지해준다. 전주혜(200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안정감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은 부모효능감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어머니 연령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다문화가정 어머니 연령이 20대인 경우가 30대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세에서 30세 사이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31세 이상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진애경(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동북아출신 국가인 경우가 동남아출신 국가인 경우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출신 국가는 한국과 인접한 국가들이며 또한 경제적 발달 수준과 사회적 인식 수준이 동남아출신 국

가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사회적 특성(배우자 지지, 주위 인물의 지지)을 살펴본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배우자 지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배우자 지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동북아 국가 출신이 동남아 국가 출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배우자 지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연구한 홍미기(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의 차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양육행동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양육행동 효과성은 동북아국가 출신 어머니가 동남아국가 출신 어머니보다 양육행동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동북아국가들은 유교문화권을 통해 부모·자녀 사이에 대해 다른 문화권에 비해 밀접하며 부모가 자녀의 장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는 것에 있다. 또한 동북아국가는 동남아국가에 비해 교육수준, 문화수준, 경제수준이 높음으로 인해 자녀에 대해 지지할 수 있는 역량이 큰 것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동북아국가 출신이 동남아국가 출신보다 양육행동 효과성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행동 효과성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가 고졸이상인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에 따른 양육행동 효과성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행동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주혜(2009)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행동 효과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통해 본 분석결과를 지지해준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

녀의 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게 되며, 양육에 있어서도 자녀의 행동에 더 민감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전주혜, 2009).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성취와 관심이 높고, 애정적이며, 즉각적인 반응성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김미숙, 2005)를 살펴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경제수준은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연령,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수준, 양육스트레스 하위 요인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로 인한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수준, 주위 인물의 지지 수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 양육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동북아국가 출신일 경우 동남아국가 출신보다 양육행동 효과성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 출신 부모는 양육행동 효과성이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지은진(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필리핀인 경우 가톨릭 사회이며 모계사회라는 사실은 필리핀 출신 여성으로 하여금 양육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순실(2008)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일본여성인 경우 자녀관계가 원만하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본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국가 출신국가 여성들이 교육수준이 높으며 부모효능감이 높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출신국가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행동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 효과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많다. 김미숙(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행동 효과성이 높다고 연구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기여하는 부모효능감의 역할을 강조하는 안지영(2000)의 연구결과와 부

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문혁준, 1999; 우희정, 1993)를 살펴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효능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김미숙, 2005 재인용).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양육행동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양육행동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행동 효과성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이경아, 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Abidin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태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살펴볼 때(김정진, 2000 재인용),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사회적 요인인 배우자의 지지와 주위 인물의 지지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난다고 연구한 김민정(2007)의 연구결과와, 주위 사람들의 지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난다고 연구한 황영주(1997)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한국인 여성과 달리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와 배우자 및 주위 인물과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지지의 수준이 낮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지지 자원이 친구 및 동일 국가 출신임을 고려하여 볼 때, 양육행동 효과성에 영향을 끼치는 동질집단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접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과 자립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적 부담이 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도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 어머니의 경제적 여건의 개선을 위한 취업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부모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 양육행동 효과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효능감은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를 이해하며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부모효능감은 양육행동 효과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부모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양육행동에 대한 교육과 자녀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기질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7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자녀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녀기질에 대한 낮은 이해는 양육행동 효과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주된 대상이 친구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동질 집단에 대한 지지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같은 국가출신으로 동질집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양육행동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의 교류를 통한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또 이러한 네트워크는 시골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겐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 및 가족 지지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배우자 및 가족 지지자들 간의 갈등의 주된 원인이 문화적 차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 국가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료와 다양한 매체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남성이 다문화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고충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효과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세우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은 영남권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표집되었으므로 그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전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측정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가에 따라 양육행동 효과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아직까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가에 따른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강석광,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성률, 2009, 가족 및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순주, 1996, 어머니 관련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경,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형성,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200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7, 취업모의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직업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경, 2010,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실, 2007,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진, 2000, 정신장애여성의 양육관련변인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연구: 임상적으로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어머니와 일반 어머니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혁준, 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 박성연·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박사학위논문.
- 박응임,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9.
- 손은록, 2004,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과 갈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혜,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선진,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숙재, 2005, 아동중심놀이치료, 동서문화원.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 석사학위논문.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희정, 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희정 · 이숙, 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 71-90.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실, 2008,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요인과 학교생활 어려움에 관한 분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미, 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진숙, 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상미, 200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원요구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주혜, 2009,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혜영 · 이창호 · 권순희 · 서덕희 · 이은하, 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 · 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은진, 2007, 어머니 양육태도와 자녀 기질이 자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국제 결혼 이주 필리핀 비교,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애경,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경험과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형주,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미기, 2009, 결국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정유, 2007,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영주, 1997,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사회적 지지가 자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지민, 2010, 일반 아동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Hovey, J.D., Magana, C., 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3), 223-237

Latham, G.P., Locke, E.A.,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212-247.

Mondell, S., Tyler, F.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 solving /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Peterson, C., Stunkard, A.J., 1992, Cognates of personal control: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and explanatory style,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1, 111-117.

Smart, J.E., Samrt, D.W., 1995, Acculturative stress of Hispanics: Loss and Challeng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390-396.

Silver, W.S., Mitchell, T.R., Gist, M.E., 1995, Responses to successful and unsuccessful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attribu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2(3), 286-299.

Yim, S. B., 1988, Future Research Topics on Domestic Violence among Korean American Families, In the Proceeding of the First Annual Conference on Korean-American Research. Chicago: Pacific/Asian American Mental Health Research Center.

통계청, 2009, 인구동태통계연보, <http://www.kostat.go.kr/>

Research on the Variable Factor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arenting behavior by a Mother in Multi-cultural Family

Lee, Kyo-I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factor and the influence affecting the parenting behavior effectiveness of the mother in multi-cultural family as well as to arrange the social welfare strategic intervention that elevate the parenting behavior of the mother in multi-cultural family based on the results.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parenting behavior effectiveness of the mother in multi-cultural family have been shown as followings; confidence as a parent, nationality, stress by the child's personality. But other factors; age, educational standard, economical status, stress by relationship with children, stress by the achievement of expectation, spouse's support, support by people around them, stress of the enculturation; didn't have the effect on parenting behavior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se reports, practical implication was presented to increase the parenting behavior effectiveness of the mother in multi-cultural family.

Keywords Mother in multi-cultural family, Effectiveness of the parenting behavior, Influence factor of the parenting behavior effectiveness

* Gajung Communit Welfare Center, Social Welfare, rewave@naver.com